



눈 그림 세차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25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마을에서 바라본 남도 소금강 월출산이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2038 광주·대구·아시아게임 (AG) 공동유치 찬성률 '뚝'

2038 광주·대구·아시아게임(AG) 공동유치에 대한 대시민 2차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 조사 대비 인지율과 찬성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8 광주·대구·아시아게임 공동유치에 대한 2차 시민 설문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지율은 22.0%(표본오차 4.06%), 찬성률은 71.8%(표본오차 4.41%)로 조사됐다.

공동유치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국가와 지역경제 기여,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재정부담과 일상 불편을 이유로 들었다.

앞선 1차 설문조사 당시 인지율은 58.5%(표본오차 4.29%), 찬성률은 91.9%(표본오차 2.38%)였다.

1차 설문 조사 대비 찬성률 20.1% ↓
 인지율도 반토막...재정·일상 불편
 광주시, 오늘 공동유치 대시민 보고회

2차 설문조사는 2038 아시아게임 공동유치 첫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질책이 이어지자 광주시는 핵심분야인 주민 설문조사와 경제성·과급효과, 경기장 운영계획 등에 대한 연구를 전면 보강키로 했다.

광주시는 1·2차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6일 영주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2038 하계아시아게임 공동유치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시의원·시민단체·체육 관계자·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공동유치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공동유치 기반조사,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구와의 공동유치 추진과 관련,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최강 한파인데”...난방비 폭탄에 시름하는 서민들

#1. 광주 A아파트 주민 박모(39)씨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난방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평소 20만 원대였던 관리비가 30만 원대로 올라서다. 이달엔 최강 한파로 난방을 자주 해 관리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

#2. 전남 나주 B아파트 주민 김모(45)씨도 평소 30만 원 조금 못 나오던 관리비가 50만 원 가까이 치솟았다. 이후 김씨는 설 명절 전부터 난방을 모든 방에서 일부 방만 켜고 시간도 하루 2~3시간으로 줄였다.

#3. 광주에서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는 박모(29·여)씨도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지난 달의 경우 영업을 일주일만 해 가계에 머무는 공백이 길었는데도 평균 4만 원보다 많은 7만 원이 청구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전쟁 여파로 가스비가 급격히 뛰면서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광주 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0.7164원으로 지난해 1월 15.2497원과 비교해 35.8% 올랐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 1월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는 메가줄 당 평균 14~15원 안팎이 었지만 이달 20~21원으로 올랐다.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LNG·liquefied natural gas)는 가정용 취사와 냉·난방에 활용된다.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면 각 도시가스 회사가 이를 구매, 배관을 통해 지역에 전달하는 구조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 요금(약 90%)과 소매 요금(약 10%)으로 나뉜다. 도매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매 요금은 시도 지사가 결정한다.

광주시·전남도는 지난해 가정용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동결했으나 도매 요금이 큰 폭(약 42%)으로 올랐다. 이에 전체적인 가스 요금이 인상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난방비 폭증’을 걱정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육아 카페에선 주부들이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가스비가 3~4만 원

광주 가정용 도시가스비 전년 比 35% 증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열 요금 1년 37% ↑
 전문가 “겨울 한시적 차상위계층 세금 완화”

에서 많게는 2배까지 올랐다는 반응이다. ‘보일러 트는 시간을 줄여야 할 듯’, ‘가스비 후덜덜’, ‘월급은 안 오르고 공공요금만 올라 살기 팍팍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치솟은 난방비에 대해 주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난방비 폭탄과 물가 폭등 때문에 서민층이 살기 팍팍하다는 하소연이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운영역 의원(광주 동남 갑)도 “소득이 높은 분들은 몰라도 저소득층은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난방비 급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손실도 1조 8000억 원에 육박, 재정

이 악화한 것도 가스비 인상 요인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를 보면 이날 기준 LNG수입 가격은 톤(t)당 1255.04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138.14달러)보다 10%, 지난 6월(762.07달러) 대비 64% 오른 수준이다. 가스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면서 열 요금(온수·난방)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37%나 줄줄이 올랐다.

가스요금이 올해 2분기에 추가로 인상될 수 있어 서민들의 고충이 깊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관리비가 평균 10만 원 정도 올랐다. 생활비는 줄일 수 있지만 한파 속 난방·가스 요금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심리적 타격이 크다”며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스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